



[신상정보]

이름 : 유수호

나이 : 21세 / 남

특이사항 : 평소에 윤새롬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윤선생타로’를 즐겨보던 팬이다.

고아이기 때문에 보육원에서 쫓겨나고, 보육원을 나와서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오토바이로 배달일을 하기 시작하였다.

평소에 윤선생타로채널을 보면서 자신의 힘들고 외로운 처지를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타로의 희망적인 이야기와는 다르게 점점 상황이 나쁘게 흘러가서 윤새롬의 점괘가 자신에게 희망고문을 준 것 같아서 따져 묻고 싶은 마음에 윤새롬의 집을 찾게 되었다.

[자기소개]

아... 저는 배달일을 하는 유수호라고 합니다. 저는... 그냥 배달을 하다가 근처를 지나 가게 되었을 뿐입니다.

[알리바이 정황소개]

우연히 8시 15분쯤 근처를 지나갔어요. 문이 열려있길래 안을 들여다보니...

웬 남자가 손에 월 들고있고, 옷에 피가 흥건하더라구요.

도망가려고 하길래 이 아픈 다리로 부지런히 쫓아서 잡았습니다.

그게 답니다.

[등장인물]

윤새롬 : 윤선생 타로방송을 하는 유튜버로 팬이다. 그녀의 점괘가 처음엔 꽤 잘 맞아떨어졌다. 희망적인 새롬의 점괘에 잠깐 희망을 가진적도 있다.

제발 자신의 삶에도 별이 들었으면 좋겠다.

한호랑 : 윤새롬과 라이벌 관계의 타로 유튜버로 알고 있다. 몇 번 가서 악플을 단 적이 있다.

오정성 : 모르는 남자

곽편집 : 모르는 남자

[당신의 이야기]

고아이기 때문에 보육원에서 쭉 자라왔고, 보육원을 나와서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오토바이로 배달일을 하기 시작하였다.

평소에 윤선생타로 채널을 보면서 자신의 힘들고 외로운 처지를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타로의 희망적인 이야기와는 다르게 점점 상황이 나쁘게 흘러갔다.

점괘의 내용과는 다르게 오토바이 사고를 내서 몸이 다치고, 수리비를 물어야 했고, 알바하던 곳에서는 돈을 떼이기도 했다.

믿었던 친구는 수호를 이용만 했다. 수호는 삶의 무게가 점점 원망이 되어가고 있었다.

윤새롬의 점괘가 자신에게 희망고문을 준 것 같아서 따져 묻고 싶은 마음에 윤새롬의 집에 찾게 되었다.

방송을 꾸준히 챙겨본 덕에 생방송에서 실수로 집 주소를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사건 당일.

당신은 배달 일을 나가서 오전 내내 배달을 했다.

그리고 오후 7시 반쯤 피해자의 집 근처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휴대폰을 보면서 윤 선생타로 생방송을 볼 생각이었다.

그리고 생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 윤새롬의 집에 방문하여서 따져 묻고 싶었다.

진짜 타로가 맞는거냐고? 나같이 희망 없는 애가 횡재운같은게 있냐고?

그걸 물을 생각으로 오토바이에서 기다렸다.

8시 생방송이 시작되었다. 방송을 보고 있는데 8시 15분 갑자기 자리를 이탈하더니 누군가와 싸우는 소리가 나더니 머리를 맞고 쓰러진 피해자가 카메라에 비쳤다.

수호는 놀라서 바로 새롬의 방으로 달려갔다.

문이 열려 있었고, 열린 문으로 봤을 때 웬 남성이 손에 무언가를 든채 쓰러져있는 피해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남성이 수호를 발견하고,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떨어트리고 문 앞에 있던 수호를 밀치고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다급하게 잡으러 갔다. 아픈 다리로 빠르게 그 사람을 잡을 수 있었다.

[당일 타임라인]

7시 30분 이전시간 : 쭉 배달 일을 하였다.

7시 20분 : 마지막 배달로 교촌 치킨 배달

7시 30분 : 새롬의 집 근처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기다렸다.

8시 15분 : 생방송에서 윤새롬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장면을 보고 집으로 달려감.

집에서 한 남성을 보고 그 남성이 도망치자 쫓아감.

8시 20분 : 그 남성을 잡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을 윤새롬집으로 오라고 하고, 남성을 그쪽으로 데려간다.

[당신이 알고 있는 정보]

1> 윤새롬의 ‘윤선생타로’가 탄생한 이야기를 알고 있다.

대학 시절에 취미로 타로를 접하게 된 윤새롬은 같은 타로 수업을 받은 친구와 함께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 서로가 편집과 연출을 도와



주고, 분위기와 컨셉을 잡아갔었다고 한다. (스크랩 자료)

2> 7시 반부터 집에 들어간 사람을 본적이 없다. 그리고 8시부터 8시 15분 사이에는 생방송을 보느라 누가 들어갔는지 보지 못했다.

[당신의 증거들]

1> 수호의 유튜브 계정	: 댓글 목록을 보면 ‘호랑타로’에 악성 댓글을 쓴 것이 몇 개 보인다.
2> 서바이벌 칼	
3> 일기장	<p>2월 1일</p> <p>결국 보육원을 나왔다. 이제 갈 곳은 없는데... 우선은 아는 형 집에 얹혀 살기로 하긴 했다. 그래도 돈 모으면 독립 해야겠지?</p> <p>2월 15일</p> <p>배달 일을 시작했다. 오토바이는 형이 빌려준 돈으로 구입했다. 중고지만 나름 일 할만했다. 그거면 충분하지...</p> <p>그리고 오늘 유튜브를 보는데 타로 유튜브를 처음 봤다. 제네럴 이면 정확하지 않을 거라는데 정확했다. 내가 지금 의지할 사람도 없고, 돈도 급한 상황이라고... 그래 그래도 앞으로 희망이 보일거라고 했다. ‘윤선생타로’원가 좋은 말을 많이 해줘서 내 미래가 희망적일 것 같다.</p> <p>3월 5일</p>

	<p>나름 횡재를 한다더니 길 가다가 5만원을 주웠다. 기분이 좋았다.</p> <p>이번달은 내내 평안한 한 달을 보낸다고 하니 그 점괘도 믿어 봐야지,</p> <p>4월 15일</p> <p>내 생일이다.</p> <p>타로대로 풍족한 한달을 보내는 중이다. 형이 밥도 사주고, 선물로 배달할 때 입으라고 바람막이도 사줬다. 기분이 좋다.</p> <p>8월 30일</p> <p>횡재한다며? 순조롭다며? 여친도 만난다고?</p> <p>그런데 형이... 내가 그동안 번 돈 가지고 튀었다.</p> <p>집세도 이미 5달치 밀려있었다. 그걸 모르고... 집주인이 내가 갚지 않으면 고소한다고 했다. 우선... 기다려 달라고 사정 했다.</p> <p>10월 3일</p> <p>오토바이 사고를 당했다.</p> <p>배달하던 음식과 병원비. 그리고 오토바이를 다시 사야하는 상황이라서... 너무 힘들다.</p> <p>11월 29일</p> <p>이번에는 직접 타로를 봤다. 전화로 30분동안 타로를 봐주는데 3만원이다.</p> <p>좀 비쌌지만 받았다.</p> <p>그동안 희망적인 내용이 다 유튜브로 봐서 그런걸 수 있으니까. 직접 전화로 점괘를 들었는데 희망적이다... 아... 이번에도 희망고문일까? 앞으로 큰 횡재가 있어서 팔자가 필거라는데... 과연?</p> <p>로또는... 사긴 했는데... 아무래도 직접 만나서 얘기 해보는건 어떨까?</p>
4> 병원비 영수증	

	
5> 신체검사	
6> 사진	고아원 사진
7> 배달 내역	오후 7시 20분 마지막 배달완료건이 있음. 교촌치킨 배달
8> 사진	